



SARANG

답사기 02-03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답사동호회 해외테마답사 _ 홍콩 마카오 일원 ①

광주 지역 뉴스 08-09

2025년,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광주건축사회·한국재난안전기술원 업무협약식 개최
광주건축사회 바둑동호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친선교류전 열려

전남 지역 뉴스 04-05

전남 영암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가 3인 위촉
전남건축사회,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업무협약 체결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2025년 제1회 경관위원회' 개최

전북 지역 뉴스 06-07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산불 이재민을 위해 성금 1,000만원 기탁
전북대학교, 2025년 한옥 전문인력 양성과정 2개 전 과정 선정
전북 부안군, 건축안전전문단 제1기 26명 위촉

독자광장 10

사랑에서 _ 1인 건축사사무소의 현실과 지속가능한 협업 체계의 필요성
책 소개 _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한 장의 사진 _ 문화비축기지 T2

설계공모 11

삼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증축공사 설계공모

광고 12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5.6.187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전라남도건축사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답사동호회 해외테마답사 _ 홍콩 마카오 일원 ①

김동우 건축사 / (주)지평 건축사사무소 (광주)

2025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건축답사 동호회는 '가치 있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홍콩과 마카오 지역을 중심으로 3박 4일간의 첫 해외 테마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홍콩은 1997년 반환 이후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 아래 특별행정구로서 독립적인 법체계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47년까지의 50년 유예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고, 2019년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와 2020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기점으로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화가 도시 전반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무엇이든 가능한 도시'였던 홍콩의 개방성과 자유로움을 점차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활력과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답사에서는 이러한 도시의 전환기에 주목하며, 개발이 제한적인 물리적 환경 안에서 어떻게 도시가 지속적으로 리노베이션되고 있는지, 그리고 높은 집값과 밀도 높은 주거환경이 어떤 도시적 삶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관찰하였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공공수변공간, 공원과 공중가로 등 공공영역의 조직 방식은 한정된 토지 위에 어떻게 삶의 여유를 조성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축의 복합성과 밀도,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와 도시 정책, 주거문화의 다양한 층위를 직접 체험하고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시설, 녹지와 보행 네트워크의 유기적 연계

서구룡 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WKCD)

홍콩 서쪽 해안, 고밀도의 도시 풍경 속에서 갑작스럽게 펼쳐지는 개방감있는 공간이 등장합니다. 고층 건물의 숲과 항만의 분주한 움직임 사이, 서구룡 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WKCD)는 도시가 예술과 만나는 일종의 경계 공간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답사 일정 중 방문한 City



M+현대미술관에서 바라본 서구룡 문화지구 전경

Park는 WKCD의 중심부이자, 단순한 공원 이상의 의미를 지닌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2009년부터 포스터 앤 파트너스(Foster + Partners)의 마스터플랜 아래 조성되었고, 2011년 'City Park' 마스터플랜이 공식 채택되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홍콩의 전체 면적 중 개발 가능한 땅은 약 25% 수준에 불과하며, 그중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제약 속에서 서구룡 문화지구는, 도시민의 삶과 예술, 여가가 공존하는 새로운 공공 영역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M+ 미술관, Xiqu Centre(전통오페라 공연장), 홍콩 고궁박물관 등이 인접해 있어, 공간을 이동하는 동선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공원'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넘어, 도시 속 복합적 문화플랫폼으로의 진화를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City Park는 높은 도시 밀도 속에서 드물게 경험할 수 있는 '비워낸 공간의 개방감'과, 문화와 자연이 만날 때 비로소 생성되는 '새로운 도시의 행위'를 담아냅니다. 단순히 잘 설계된 공원을 넘어, 이는 도시 속에서 비움이 만들어내는 가능성과, 그 안에 채워지는 삶의 풍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경험과 비일상의 체험

M+현대미술관(M+ Museum)

M+ 현대 미술관(M+ Museum)은 서구룡 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WKCD) 내에 위치한 핵심 문화시설로, 시각 문화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아시아 최초의 종합 현대미술관을 목표로 기획된 건축물입니다. 2013년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Herzog & de Meuron, TFP Farrells, Arup 컨소시엄이 당선되었고, 2014년 착공하여 2021년 11월 정식 개관했습니다.

건물은 지상부 포디움(Podium)과 상부 타워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디움에는 33개의 전시공간을 포함해 미디어 센터, 시네마, 공공 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배치되어 있고, 상부 타워는 연구소, 레지던시, 회원 라운지, 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되어 미술관의 기능을 수직적으로 확장합니다.

초저녁 홍콩섬과 구룡 반도를 오가는 페리 위에서 바라본 M+의 수직 타워는 하나의 도시 경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타워 외벽에는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디지털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있으며, 미술관이 단순히 내부 콘텐츠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스카이라인 속에서 시각 문화의 일부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해 재료 고유의 질감을 강조한 모던한 마감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 진한 녹색빛의 자기질 타일을 파사드의 포인트로 활용하여, 파라메트릭한 입면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포디움 상부의 옥상정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탁 트인 공원 전경과 수변 산책로가 프레임 속에 차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공원과 맞닿은 열린 외부 공간에서의 일상적인 체험과, 전시·이벤트를 통한 비일상적인 경험이 한 장소에서 공존하며, 방문객에게 다층적인 도시적 감각과 문화적 몰입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건축의 재해석과 상징성

홍콩 고궁박물관(Hong Kong Palace Museum)

홍콩 고궁박물관(Hong Kong Palace Museum)은 중국 베이징 자금성의 소장품을 전시하기 위해 서구룡 문화지구(WKCD) 내에 건립된 문화시설로, 2022년 7월, 홍콩 반환 25주년을 기념하여 개관하였습니다. 이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문화적 연속성과 통합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건물은 자금성의 수평적 공간 구성을 수직적 아트리움의 흐름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세 개의 중정(아트리움)이 층층이 이어지며, 각 층에서 빅토리아 하버를 조망할 수 있도록 차경(借景)의 원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M+현대미술관 1F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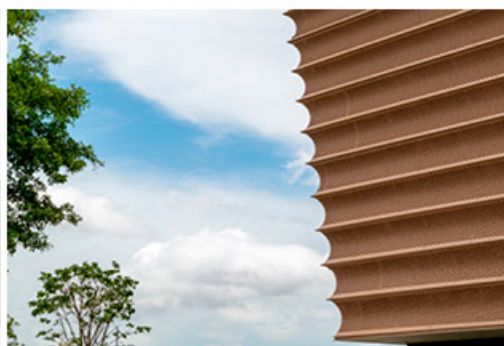
프로그램 스텝에서 바라본 공원의 차경



M+현대미술관 B2F 전시공간 프로그램 스텝 상부 벽면녹화



홍콩 고궁박물관 전경



홍콩 고궁박물관 파사드

특히 천장과 상부 천장의 곡면은 자금성 지붕의 형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금빛 조명, 벤치, 곡선형 라인 등에서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 공간에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마감과 상징적 연출에도 불구하고, 내부 공간의 시퀀스와 시선의 흐름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도는 분명 가치 있는 시도이지만, 그 구현 방식은 사용자 입장에서 충분히 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상징성과 장식성에 집중된 구성은 공공시설로서 요구되는 명료한 동선과 공간 감각을 일정 부분 희석시키는 면이 있어, 실제 체험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전통 건축 언어의 현대적 변환이라는 면에서는 의미 있는 설계 접근이지만, 그 복잡성이 과연 대중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식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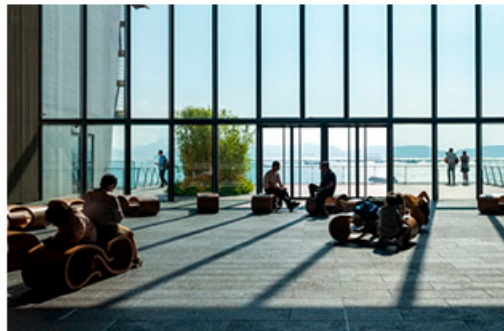
역사적 건축물 위에 '띄워 올린' 미술관

JC Contemporary

JC Contemporary는 2018년 완공된 Herzog & de Meuron의 작품으로, 홍콩 센트럴의 타이쿤(Tai Kwun) 문화예술센터 안에 위치한 현대미술 전시관입니다. 이 건축물은 19세기 영국 식민지 시대 경찰 본부를 문화 예술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역사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새로운 건축물이 기존 유산을 압도하지 않고 배경이 되도록 절제된 입면 언어로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마치 기존 역사적 건물 위에 살짝 띄워 올린 듯한 가벼운 매스를 형성하고 있으며, 입면은 간결하면서도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고유한 조형 언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장은 재활용 주조 알루미늄 브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폐자동차 알루미늄 휠 합금을 원료로 사용한 지속가능한 소재라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이러한 외피는 기존 경찰청의 화강암 담장과 유사한 질감과 스케일로 구성되어, 신·구 건축물 간의 재료적 조화를 이루며, 도시 맥락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배경 건축'으로 기능합니다.

내부 공간에서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노출콘크리트로 구성된 나선형 계단입니다. 이 나선계단은 단순한 수직 동선이 아닌 공간 전체의 중심축이자 조형적 하이라이트로 작용하며, 관람자의 이동 경로를 시각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선 속에서 자연스럽게 차경이 발생하고, 각 층의 전시실이 계단을 중심으로 연결되면서 전시 동선의 연속성과 공간적 긴장감을 함께 형성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하버를 조망하는 중정 공간



JC Contemporary 알루미늄 브릭 파사드



공간의 시각적 연계, 나선형 계단

이처럼 JC Contemporary는 과거의 물리적 흔적 위에 새로운 감각을 덧입히되, 그 존재를 소리 없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도시의 역사와 현대 건축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뽐내지 않지만, 강한 개성과 절제된 미학이 공존하는 건축물로, 재료의 물성과 조형 언어, 도시 문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잘 녹아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브루탈리즘 건축물의 리노베이션과 지속가능성

더 머레이 호텔(The Murray, Hong Kong)

The Murray, Hong Kong

은 1969년 영국 식민지 시기에 홍콩 정부청사로 건립된 건물로, 당시에는 27층 규모로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고층 공공건축물이었습니다. 정제된 모더니즘 양식을 기반으로 설계된 이 건물은, 기하학적 파사드 구성과 사선으로 깊게 들어간 창호 디자인을 통해 고온다습한 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기능성과 조형성을 동시에 갖춘 상징적인 구조물로 평가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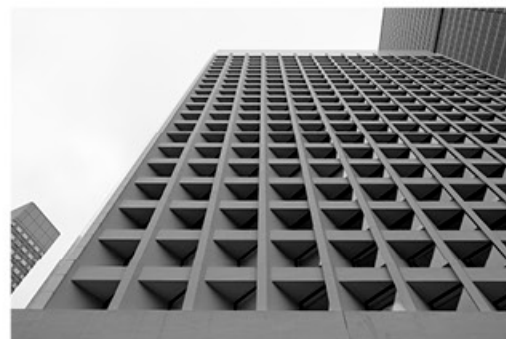
2011년 정부청사의 기능이 타마(Tamar)로 이전되며 이 건물은 일시적으로 비어 있었고, 이후 'Conserving Central'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3년 민간에 매각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Foster + Partners의 주도 하에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이 진행되었고, 기존 구조를 최대한 보존한 채 336실 규모의 럭셔리 호텔로 리모델링되어 2018년 'The Murray'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4층 높이의 아치형 포디움과 깊이 들어간 사선 창호가 원형 그대로 유지되며 건물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차량 진입 램프 또한 원래의 선형을 보존하면서도, 공공 보행 동선과 주변 녹지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Foster + Partners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홍콩 공원과 식물원 사이의 녹지 축을 회복하고, 기존 구조물의 물리적 자산을 존중하면서 보행자 접근성과 에너지 효율성, 개방감을 강화한 지속가능한 도시건축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리노베이션은 단순한 외형 보존을 넘어, 1960년대 모더니즘과 실용주의, 기능 중심의 브루탈리즘 건축물이 도시의 흉물로 철거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장소성과 건축적 상징성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The Murray는 도시 속에서 단절된 근대 건축물이 아니라, 시대를 연결하며 새롭게 호흡하는 '도시를 향한 제스처'로 기능하는 건축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7월호에 연재합니다.)



머레이 호텔의 기하학적인 패턴과 깊은 사선창



브루탈리즘 건축물의 보존과 도시 맥락의 연결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편집인 허만수

부편집인 장기섭,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전담기자 김종문

편집위원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구, 최기성, 설해순, 오선화,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6

•발전기금: 1만 원부터

•후원방식: 신협 131-009-471898(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매달 5일

문의: 광주건축사회

(T. 062-521-0026 / gikira@empas.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광고 및 구독신청

•후면 전면광고: 1,000,000원

•후면 외 전면광고: 700,000원

•하단광고: 350,000원

•하단1/2광고: 200,000원

•구독료: 20,000원/1년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협 131-009-471898



노웨어하우스(Nowhere house)

김대영 건축사 / 인우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동계천로 143-6, 4층
Tel. 062-945-5442

대지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오성리 310-5번지 / 대지면적 : 871.00㎡ / 건축면적 : 144.60㎡ / 연면적 : 144.60㎡ / 건폐율 : 16.60%
용적률 : 16.60% /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스틸하우스 / 주요 마감 : 스타코플렉스, THK49 로이삼중유리

본 프로젝트는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하기 위한 단독주택 프로젝트입니다.
건축주 가족이 직접 시공을 하시겠다고 하여 평면과 입면을 가급적이면 단순화하고, 시공 시 어려움이 없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화려한 스테이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찾아오는 이들에게 편안한 가정집 같은 분위기를 주기 위해 밝고 따뜻한 집을 원하셨고, 특별할 것 없지만 어디에도 없는 집이라는 의미로 건축주는 Nowhere house로 주택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자연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단독주택이 주는 묘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 주택의 포인트는 푸른 자연을 바라보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글 수 있는 타일로 만든 욕조가 있는 욕실과 그 욕실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외부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전원을 꿈꾸는 것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생활이나 아파트의 편리함보다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2025년도 | 6월 실무교육 실시 공지

건축사법 제30조2, 영 제30조 규정에 의거 광주건축사회 2025년도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교육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1) 실시근거 :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
(2) 실무교육 계획

일시	종류	과목	강사	장소	인정 시간	교육비	인원
6월 24일(화) 14:00~16:00	전문 교육	그린리모델링의 프로세스와 실무적용	박병열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	광주 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	2시간	30,000원	150명
6월 24일(화) 16:00~17:00	윤리 교육	건축과 인문학의 만남	박구용 교수 (전남대학교 철학과)		1시간	10,000원	150명

- (3) 교육대상 : 건축사
(4) 신청기간 : 6월 20일(금)까지 / 당일 현장접수 가능
(5) 출석인정
- 매 과목당 교육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교육이 인정되며, 15분부터는 지각 처리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교육비 환불되지 않음)
- 매 과목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출석체크
- 건축사등록원 등록카드를 이용하여 교육장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7) 수강신청 절차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접속
② 협회 ID / PW 로 로그인
③ 배너 위에 "수강신청" 클릭 ⇒ 실무교육 선택 ⇒ 과목명 클릭 후 결제
(7)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골프동호회원 및 특별회원 80명 참석... 우승은 전남 이장혁 건축사



2025년 광주광역시 건축사 회장배 골프대회가 지난 20일 화순 무등산CC에서 강필서 회장, 윤대두 골프동호회장을 비롯한 골프동호회원과 특별회원, 광주건축사회 회원 등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회사에서 강필서 회장은 "가정의 달 5월에 회원골프대회를 갖게돼 기쁘다"며 "잠시 일상에 벗어나 회원들과 친목과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골프대회는 광주건축사회에서 주최하고 광주건축사골프동호회가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개회사에 이어 기념촬영 및 시타 후 총 20개 팀이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가 끝나고 진행된 시상식에서 최종 우승자는 전남건축사회 이장혁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수건축)가 수상하였으며 그 외 메달리스트, 룽기스트, 니어리스트 등 다양한 시상과 행운권 추첨도 진행되었다.

광주건축사회·한국재난안전기술원 업무협약식 개최

회원사 실무 역량강화와 교육기회 제공...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강필서)는 지난달 29일 광주건축사회 4층 소회의실에서 회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직무 교육 확대를 위해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이사장 송창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 회원사 대상 교육훈련 과정 공동기획 및 운영, 교육인프라 및 시설의 상호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회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중심 교육 과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재난안전기술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은 광주대학교 내에 위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재난 안전 분야의 연구개발(R&D), 전문 교육훈련, 사고 분석 및 예방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광주건축사회 바둑동호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친선교류전 열려

지난달 16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관에서...



광주건축사회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바둑동호회는 지난 5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관에서 친선 교류전을 개최하며 두 지역 건축사 간의 우의를 다졌다.

이번 교류전에는 양 시·도 바둑동호회 회원 20명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띤 대국을 펼쳤다. 대국이 끝

난 후에는 양 건축사회 간의 친선 교류 확대와 향후 바둑동호회 활동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광주·제주건축사회 바둑동호회 교류전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행사로, 바둑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의 기반을 다져온 전통 있는 모임이다.

이번 교류전 역시 두 지역 건축사들의 화합과 유대를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 건축사 간 소통과 화합을 이어갈 예정이다.

광주 남구, 광주건축사회와 협력해 6월부터 건축 민원 상담실을 운영

건축 인허가 절차, 건축 관련 법규 등 상담 예정...

광주광역시 남구가 오는 6월부터 건축 관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건축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실은 광주건축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대면 건축 컨설팅을 제공하며, 9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민원 상담실은 남구청 1층 북카페 제1회의실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차례 운영된다. 광주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10명이 순번제로 상담에 참여해 주민들의 건축 관련 고충 해소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이번 무료 컨설팅은 토지 매입 전 건축행위 가능 여부, 건축 인허가 절차, 농지 및 산지 전용부지 개발행위,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관련 법규 등 다양한 건축 분야를 포괄한다.

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여러 차례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많았다"며 "이번 상담실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건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청,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등 지원 매뉴얼 발간

건축물 유지관리 등 사후 관리까지 확보...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달 29일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 시 기획부터 설계, 시공과 유지관리 전반까지 아우르는 '공공건축 건립사업 등 기술지원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매뉴얼은 법령에 기반한 행정절차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필수 절차를 누락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특히 다른 자치단체 매뉴얼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건축물 유지관리' 단계까지 포함해 사후 관리

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까지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공공건축사업은 절차가 복잡해 담당자가 전문 직렬이 아닐 경우 착오나 사업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서구는 반복된 실무 경험과 문제 사례를 분석해 공공건축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실무 중심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사업 추진 단계마다 담당 주체를 명확히 제시해 실무자가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추진 시 최초 기획 단계부터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까지 행정의 흐름에 맞춰 정리돼 있다.

한경희 서구청 건축과장은 "이 매뉴얼은 예산 효율성 확보는 물론, 공공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사후 유지관리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의견과 법령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2명 (2025. 6. 4. 기준)

• 전출

- 박수희 건축사 / 수음 건축사사무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지침 4길 7-7, 2층

• 퇴회

- 김수정 건축사 / 연수 건축사사무소
- 주효승 건축사 / 상아 종합건축사사무소

• 변경(군무체)

- 주창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태건 / 광주 동구 제봉로 137

• 결혼

- 박상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해성에이앤씨 / 아들 결혼 - 6월 15일
- 변영섭 건축사 / 청해 건축사사무소 / 본인결혼 - 6월 15일(일)
- 최장진 건축사 / 광남 건축사사무소 / 자녀결혼 - 7월 5일(토)
- 김재도 건축사 / (주)이공디벨로퍼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7월 05일(토)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전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 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한국 화이트바이오 평가 지원센터

김미영 건축사 / (주)금양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6, 8동 201호 / Tel. 061-334-2246



대지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주상동 A4-5 / 대지면적 : 4,016.90㎡ / 건축면적 : 1028.72㎡ / 연면적 : 1988.39㎡ / 규모 : 지상 2층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화강석, 세라믹패널, 테라코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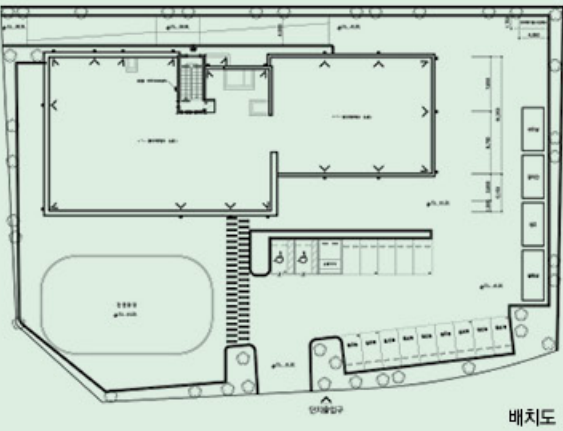
KATRI시험연구원 생분해평가센터는 연구원들의 편의성을 기반으로 기존 연구단지에서의 하나의 상징성을 가진 디자인을 가져가도록 설계되었다.

시험연구원 대상들을 위한 건축적 조건으로 첫째, 상징적인 입면적 디자인을 통한 뚜렷한 이미지화

둘째, 친환경적인 연구 환경 만들기

셋째, 연구원들의 목적성에 따른 동선 분리화

이 3가지 전략을 통해 연구원들에게 합리적인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목적성에 부합하는 연구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KCMT와 SK 에코플랜트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발주처, 건축주

건물유지보수 절감(내부식성)
철근대비 초기균열 1/2감소
탄소배출량 45% 저감
자재비 절감
녹색건축을 가산점혜택

시공사

중대재해 예방(낙하, 감전)
철근 대비 1/2 중량
획기적인 작업효율 향상
시공비용 절감(인건비, 장비비)
물류비절감(철근대비 60% 절감)

건축사

조달청 우수/혁신제품 지정
친환경자재 인증 (EPD)
품질인증 (K마크 Q마크인증)
고강도, 경량성, 내부식성, 비전도성자재
사회구성원보호 (경량자재)

근로자

근골격 질환 예방(경량자재)
작업 피로도 감소(열차단성)
사회적 소외층 일자리창출
여성, 고령자 작업 가능

"조달청 우수/혁신 제품 지정" (국토부 핵심전략산업 선정)

- 국토교통부, 국가인증센터 GFRP 철근 설계, 시공 국가건설기준 KDS, KCS 등재 (2024.01.)
- 한국도로공사 GFRP 철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공장, 물류창고, 주차장, 축사, 염분 많은 바닷가, 지하 건축물 최적화
- 초기 투자 20%, 건물 유지보수 52% 절감 (한국도로공사 데이터)



통영 스타벅스



함평 경서중공업 공장



교각 기초부 절곡근 적용

KECO 호남 총판점

광 주 권 061-371-1233
전 북 063-223-8800
서부 목포 010-3638-1882
동부 여수 010-2925-7777
제 주 도 010-2981-4444

건축주/건축사/시공사/
대리점 문의 환영

전남 영암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가 3인 위촉

김수현·이충미 건축사, 권현아 교수... 공공건축에 자문 수행



(사진 = 영암군청 제공)

에 따라, 2년 동안 월 1회 이상 비상근 자문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3월 공공건축과 도시정책 총괄건축가로 위촉된 이영범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영암군 공공건축 기획단계부터 기능성과 미적 완성도 등을 높이는 자문을 수행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공공건축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담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군민이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공건축물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전남건축사회,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업무협약 체결

회원사 역량강화를 위해 건설기술교육 협약...



(사진 = 영암군청 제공)

무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지원을 공동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공동 운영, 교육 인프라 및 전문 인력 상호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건축사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재난안전과 관련된 실질적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축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송창영 이사장 역시 "전남지역 건축사들과 함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건축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025년 제1회 경관위원회' 개최

도시 미관과 조화로운 개발 위한 전문가 심의 진행



(사진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경관관리규정'에 따라 건축, 조경, 도시계획, 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발사업을 사전에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월지구 내 공동주택 블록 변경과 기존 단독주택 용지를 대형 마트 용지로 전환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사전에 제출된 변경 계획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계획이 주변 경관과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선양규 행정개발본부장은 "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해,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완도군, 6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시스템' 운영

365일 언제든 인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원스톱 처리

전라남도 완도군이 오는 6월부터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IPSS)'을 도입해 개발행위허가를 온라인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군청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연중무휴 365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신청서 제출부터 허가증 발급, 준공검사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허가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완도군은 시스템 도입에 앞서 관내 토목 및 건축사사무소 관계자, 행정사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주민들에게는 온라인 신청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섰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기존처럼 군청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도 병행 운영된다. 군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종이서류 감축, 이력 관리 간소화, 민원 응대 시간 단축 등 행정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흥래 민원봉사과장은 "온라인 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34대 전국시·도건축사회 회장협의회, 전남 목포시·신안군서 개최

지역명소 탐방, 만찬 등 친목하는 화합 시간을 가져...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장단 협의체인 제34대 전국 시·도건축사회 회장협의회가 지난달 16~17일 양일간 전라남도 목포·신안군 일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지역명소 탐방, 만찬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 시·도회장의 건의사항과 협회 및 건축계 주요 현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남 회원동정

회원현황 : 457명 (2025. 6. 4. 기준)

• 입회

- 임지양 건축사 / 공간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34-15, 119호

• 변경(근무처)

- 이영수 건축사 / 지엘이앤지 건축사사무소(주) /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337번길 6-1, 4층

• 변경(소재지)

- 엄기성 건축사 / (주)제노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신기북3길 45-17,103호

- 박병엽 건축사 / 박병엽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 68, 상가동 108호

- 신찬양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담 / 전남 여수시 시청서2길 39-4, 4층

• 결혼

- 박계옥 건축사 / 세움 건축사사무소 / 자녀결혼 - 2025년 5월 3일(토)

- 김종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영산아트 / 자녀결혼 - 2025년 5월 31일(토)

• 부고

- 김세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도담 / 빙모상 - 2025년 5월 7일(수)

- 양성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그리고 / 부친상 - 2025년 5월 15일(목)

- 김강룡 건축사 / 유피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5년 5월 19일(월)



반석기조이엔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펄이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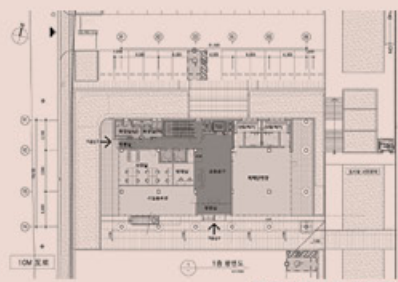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주영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우설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릉5길5-4, 2층 / Tel. 063-276-0020
유은정 건축사 / 라츠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1길 7, 5층 / Tel. 02-6014-7082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정읍시 첨단산업단지의 근무자들과 지역주민의 부족한 생활인프라를 제공하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시설이다. 체육시설과 근린생활 시설은 개별사업으로 진행되어 각기의 디자인 개념으로 출발하였으나 배치의 연계 성과 동선의 연결, 외부공간의 적절한 공유를 통하여 커뮤니티 클러스터로 기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도시 콘텍스트를 고려한 배치의 축을 형성하고, 사업지 남측의 전면 산업단지와 북측의 후면 주거 및 연구지역을 연결하는 녹지의 보행축을 형성하며, 첨단 다목적 복합센터(1동)와 복합커뮤니티센터(2동)의 배치축을 통일하고 수평적, 입체적 연결을 통해 경관 및 동선축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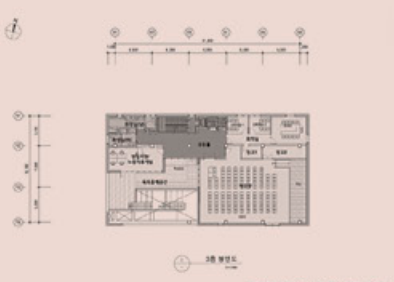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1556-1번지 / 대지면적 : 6,548.6㎡ / 건축면적 : 1,758.05㎡ / 연면적 : 3,137.45㎡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용도 :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구조 / 주요마감 : 화강석베너구이, 알미늄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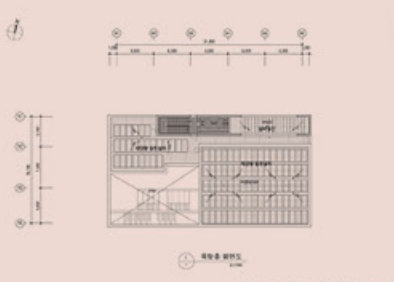
복합센터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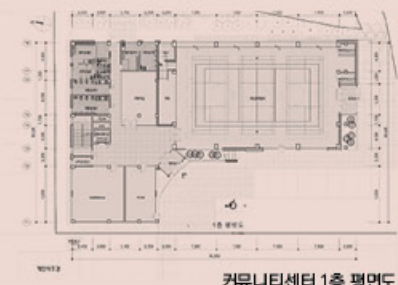
복합센터 2층 평면도



복합센터 3층 평면도



복합센터 옥탑 평면도



커뮤니티센터 1층 평면도



커뮤니티센터 2층 평면도



커뮤니티센터 3층 평면도



커뮤니티센터 옥탑 평면도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산불 이재민을 위해 성금 1,000만원 기탁 정읍시 400만원, 무주·순창·고창군 200만원씩...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열)가 전북자치도 산불 이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성금 전달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이성열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이태원·박광성 부회장, 장영기 총무이사, 한명규 전북자치도사회복지공동 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3월 정읍, 무주, 순창, 고창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정읍시에 400만원, 무주군·순창

군·고창군에는 각 200만원씩 지역별로 지정 기탁됐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돼 피해 주민의 생계 지원과 주거 복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국 건축사들의 정성이 전북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온정이 전북의 재도약을 여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은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전북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축사협회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활동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전북대학교, 2025년 한옥 전문인력 양성과정 2개 전 과정 선정

한옥설계·한옥시공 전문인력 양성 예정...

전북대학교 한옥건축사업단(단장 남해경 교수)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한옥시공 관리자 양성과정'에 모두 선정되



(사진 = 전북대학교 제공)

건축사들도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에서 접하기 어려운 BIM, Revit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옥시공 관리자 양성과정’은 건축사와 한옥시공자를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중견한옥시공관리자를 양성하는 교육이며 일반인과 건축전문가를 대상으로 모집을 할 예정이다. 두 교육 둘다 이론교육은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에서 진행하고, 실습 교육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고창캠퍼스에서 진행하게 된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전북대는 해당 한옥설계과정에 첫해부터 빠짐없이 선정된 유일한 기관이며, 최근 3년간 시공과정까지 석견해 명실상부한 한옥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약 500명의 한옥설계 및 시공관리 전문 인력을 배출했으며, 교육성과와 체계적인 운영을 인정받아 연속으로 최우수 교육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북 부안군, 건축안전전문단 제1기 26명 위촉

(주)라인종합 건축사사무소 김남중 건축사를 단장으로 선출...



(사진 = 부안군청 제공)

전북 부안군은 지난 13일 부안군청에서 제1기 건축안전전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자문단은 지난 4월부터 전국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됐으며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군은 이날 위촉식을 개최하고 김남중 건축사 ((주)라인종합 건축사사무소)를 단장으로 선출했으며 향후 자문

단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은 건축안전사고를 초기에 예측해 초기 긴급 점검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자문활동에도 힘쓸 예정이다.

부안군수는 “전문적인 안전점검 및 건축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성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군 건축 행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 전북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협약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과 지역건설 회복 등 현안 논의...



(사진 = 전북건설단체연합회 제공)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과 전북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 회복과 유동성 위기 등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재철 회장은 “전북 지역내 총생산은 64조로 전국 12위 수준이며 건설업이 7%를 차지, 전국 평균(5.8%)에 비해 건설산업에 대한 지역 의존도가 매우 높으므로 이번 협약내용이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건설산업이 전북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원택 위원장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는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며 지역경기 부양, 기반시설 공급, 성장 기반 제공의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안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며, “특히 새만금·전북 사회간접자본(SOC)확대 및 제5차 국가철도망, 6차 국도·국지도 건설 예산 확대를 위해 전북 국회의원들과 적극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확대사업과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중앙경찰학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 건축사, 소방시설, 엔지니어링, 전기, 정보통신, 주택건설 등 전북 지역내 10개 건설관련 단체가 2007년부터 가입돼 있다.

전주시 도시건축, 전문가 참여 없이는 시민의 삶도 없다

‘제2차 2025 전주지역건축사회 포럼’ 개최... 도시정책에 건축사의 역할 강조



(사진 = 전주지역건축사회 제공)

전주시 도시건축의 방향성과 건축사의 공공적 역할을 논의하는 ‘제2차 2025 전주지역건축사회 포럼’이 6월 9일(월)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전문가인 건축사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행정기관과 건축

사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전주의 도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박광성 건축사)가 주최하고 공론화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차 2025 전주지역건축사회 포럼’이 ‘전주시 도시건축 방향과 건축사의 역할’을 주제로 6월 9일(월)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의 격려사,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주시 건설안전국 김성수 과장과 (주)이상 건축사사무소 조창호 건축사의 기조발제로 막을 열었다.

전주지역건축사회 박광성 회장은 “이번 포럼은 도시건축을 전문가의 영역에만 두지 않고,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열린 장”이라며 “건축사는 도시의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설계하는 동반자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인 만큼, 보존과 개발의 균형이 절실하다. 이번 포럼이 전주시 도시정책의 진정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으며, 참석자들에게는 토론 자료집이 제공됐다. 또한 현장에서 적극적인 질의응답과 의견 개진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가 도시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전주시, 취락·경관지구서 ‘건축물 용도 제한 완화’ 입법 예고

자연취락지구 공동주택 허용, 연구개발특구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전북 전주시는 자연취락지구와 시가지 경관지구 등에서 건축물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취락지구에서 공동주택 허용,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허용 및 건축 가능 시설기준 정비, 주거지역 내 공공업무 시설에서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허용, 연구개발특구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이다. 이를 통해 녹지지역에 밀집한 취락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 시가지 경관지구에 대해선 건축물 용도 제한 기준을 재정비한다. 해당 지구는 폭 25m 이상 대로변에 지정돼 있으며, 시는 경관 저해 요소가 적은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등 일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 가능 시설의 예외 적용을 정비한다. 또 낙후한 전통시장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70%까지,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국승철 시 건설안전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한 구체적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민간투자 촉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회원동정

회원현황 : 528명 (2025. 6. 4. 기준)

• 변경(소재지)

- 한희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화선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남로 2519-19
- 오치광 건축사 / 한울 건축사사무소 / 익산시 인북로32길 10, 2층

• 변경(사무소 형태)

- 류충렬 건축사 / 금만 건축사사무소 → (유)금만 건축사사무소 이앤지
- 김승기 건축사 / 높 건축사사무소 → (주)높도시 건축사사무소

• 전출

- 문고리 건축사 / (유)에스디 건축사사무소 / 광주전출
- 김혜수 건축사 / 해움 건축사사무소 / 서울전출

• 결혼

- 차승조 건축사 / 우인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5년 5월 24일(토)

• 부고

- 김종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우리설계 / 부친상 - 2025년 5월 24일(토)

사랑에서 _ 일백열한 번째

1인 건축사사무소의 현실과 지속가능한 협업 체계의 필요성

현재 건축사들의 약 40%는 1인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입 건축사 대부분은 홀로 사무소 운영을 시작한다. 혼자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거창한 철학이나 대단한 신념 때문이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람에 대한 믿음의 부재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도 이 두 가지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프로젝트의 수익은 일정하지 않고 정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 어떤 경우에는 끝내 미수로 남기도 한다. 그런데 직원을 고용하면 급여와 4대 보험, 퇴직금 등 많은 유지비가 따라온다. 게다가 이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내가 혼자서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벌자'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곧 이 방식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혼자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1인 건축사사무소가 안고 있는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는 인력난이다.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규모 사무소일수록 그 어려움이 크다. 신입을 채용하려면 교육비와 이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므로 대부분 경력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경력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경력을 요구하는 업무만 많아질 뿐, 정작 경력을 쌓을 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신입은 채용할 수 없고 경력자는 구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심지어 몇 안 남은 경력자들은 곧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둘째는 업무영역의 한계다. 1인 사무소는 자연스럽게 수주 가능한 업무가 제한된다.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는 애초에 조건 자체를 충족하기가 어렵다. 입찰요건에 일정 경력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건축물 관리점검이나 해체감리 등 법적으로 단독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는 계속 늘어난다. 결국 설계역량과는 무관하게 진입 자체가 막히는 시스템이다. 혼자서는 진행이 어려운 규제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맞는 대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셋째는 협업 시스템의 부재이다. 변화하는 건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개별 사무소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현재는 건축사사무소 간의 협업이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한 건축사의 명의 아래 여러 명이 실무를 분담하는 비공식적인 방식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 책임이 불분명하다.

이제는 현실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각자의 사무소를 유지하면서 공식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공유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해지면 지금처럼 경쟁만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서로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다. 또한 연대의 기반 위에서 신입도 보다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 하나의 사무소가 아닌 연합된 체계 속에서는 더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변화다. 현실에 맞는 협업의 길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지혜 건축사
겨루 건축사사무소(광주)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매트 헤이그 / 인플루엔셜 / 2021. 4. 28.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상상을 하게 된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지나간 일 앞에서 후회를 곱씹으며, 선택하지 않은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았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기도 하고. 매트 헤이그의 소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바로 그런 상상의 끝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였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무한한 가능성 속 나를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신비한 공간 '자정의 도서관'이라는 이 설정은 마치 꿈속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 나를 실제로 만나게 해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소설의 주인공 노라는 인생의 여러 사건(어머니의 죽음, 연인의 이탈, 일자리 상실, 그리고 사랑하던 반려묘의 죽음 등)을 감당하지 못한 채 스스로 삶을 끝내려 한다. 그리고 그 끝에서 깨어난 곳은 바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그곳의 책은 모두 그녀가 살았을지도 모를 다른 삶들로, 선택의 갈림길마다 다른 방향을 택했다면 도달했을 다양한 세계를 담고 있다. 노라는 빙하학자가 되어 북극의 얼음 위를 걷기도 하고, 세계적인 뮤지션이 되어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공연도 한다. 펍을 운영하거나, 아이를 키우거나, 평범하지만 조용한 삶을 살아보기도 한다. 처음엔 그것이 하나같이 다 '완벽해 보이는 삶'처럼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매번 다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끝내는 깨닫게 된다. 완벽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이 부분에서 나는 나 자신과 깊게 겹쳐졌다. 건축이라는 길을 선택한 이후, 나는 늘 무언가를 증명하고 완성하려는 마음에 쫓기며 살았으며,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꼭 어떤 선택이 '최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다. 때로는 불완전한 선택도 나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과정이고, 후회가 있다고 해서 그 삶이 틀린 건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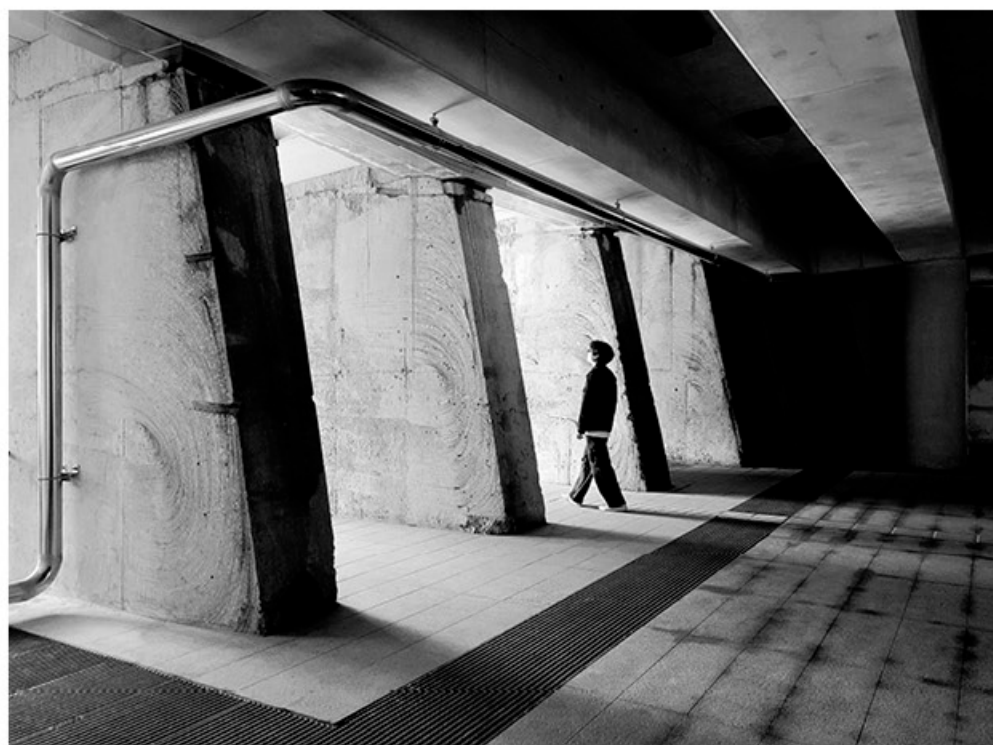
이 책은 단순히 삶의 위로를 건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독자에게 조용하지만 강렬한 질문을 던진다. "그 삶에서도 역시 후회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 질문은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후회하며 살았던 시간을 지나왔고, 앞으로도 또 다른 후회를 마주하겠지만, 그럼에도 삶은 여전히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살아 있음 자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는 작가의 메시지는, 나처럼 때때로 자기 삶의 의미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

나는 이 책을 누구보다도 20대의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진로, 관계, 미래, 존재의 의미 등 수많은 선택과 고민 앞에 선 이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마음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선택은 나를 위한 것이고, 실패와 후회 또한 결국 나라는 사람을 빛는 재료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어떤 삶이든 결국 나답게 살아내는 법을 배워가는 여정이란 걸 알려주는 책이다. 내 마음 한편에 오래도록 남을 이야기였다.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작 / 순천대학교



문화비축기지 T2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년 5월 11일

삼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증축공사 설계공모

삼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증축공사는 지방의 노인인구 증가와 공중보건의 감소 등 급변하는 농어촌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진료중심에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의 기능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별도증축을 통해 부족한 의료 및 서비스 영역을 확보하고자 한다.
추가 확보된 대지는 기존 삼호보건지소와 2m 높이의 단차가 있어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동선연계가 필요하고, 기존 건축물 및 환경과 이질감 없는 입면계획, 목포에서 영암간 도로에서 노출되는 랜드마크적 경관 구현이 요구된다.

심사위원 : 김정철(AD건축사사무소), 최재영(광주대학교), 염대봉(조선대학교), 강성구(스페이스나인건축사사무소)

- 대지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 249-10 외 1필지
 - 지역지구 : 도시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1,612㎡(도로제척 : 64㎡)
 - 건축면적 : 701.49㎡(기존 : 331.99㎡ + 증축 : 369.50㎡)
- 연 면 적 : 1,166.16㎡(기존 : 490.37㎡ + 증축 : 675.79㎡)
 - 규 모 : 지상 2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 : 치장벽돌, 세라믹판넬

당선작
장기섭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온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만의, 유일한 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의 자산이자 자부심입니다.



보증보험사의 상품은 사고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건축사공제조합	보증보험사
상품구분	손해배상공제증권(=보험상품)	보증보험증권(=보증상품)
배상내용	가입금액 한도 내 건축주 및 건축사 손해 보장	가입금액 한도 내 건축주만 손해 보장 건축사에게는 구상권 행사

건축사공제조합 혜택

출자지분 상승 | 2010년 100,000원 → 2025년 상반기 178,240원

우대조합원제도 | 공제료 및 보증수수료 후납 / 연대보증인 자격 완화 /
 공제료 분할납입 시 건축주 확인서류 면제
※우대조합원 : 연매출 20억원 이상의 법인건축사사무소 또는 조합이용실적 상위 법인건축사사무소

제증서 자동발급 | 공제가입금액 700만원 이하, 보증금액 200만원 이하는
 조합 심사를 생략하고 24시간 자동발급

소액한도거래 약정 | 연대보증인 없는 소액약정[700좌까지(업계최대) 확대]

신용한도거래 약정 |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이용한도를 설정하는 약정

공인인증서 할인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할인

마일리지 제도

노무·법률 자문 서비스

건강검진 할인

국민에게 **신뢰**를, 건축사에게 **미래**를, 조합은 **성장**을! 2030년, 자산 **3,000억** 달성!



건축사공제조합
 CERTIFIED ARCHITECTS FINANCIAL COOPERATIVE

자세한 사항은 조합(www.cafco.kr / 02-3473-09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